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한 음성장애에 대한 음성치료 역할 Role of Voice Therapy after Post-thyroidectomy Dysphonia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치료실

윤 영 선

갑상선 수술 후 음성 문제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동반하거나, 일부는 기능적 음성장애를 수반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의학적 치료 방법을 통해 상기 음성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하는 편이나, 여전히 음성치료는 성대마비에 대한 첫 번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고, 또한 의학적 치료와 병행하여 보조적인 치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갑상선 수술 후 나타난 편측성 성대마비의 경우, 대부분 성대주입술, 갑상성형술, 피열연골내전술과 같은 시술 및 수술을 통해 성대 접촉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학적 치료가 제공되기 전 일정기간 경과 관찰을 우선 할 경우에는 행동적 음성치료로서 발성 개선을 유도해볼 수 있다. 또한 상기 의학적 치료 후에도 호전된 발성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음성치료 병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음성치료 목적은 성대 접촉을 유도하여 발성 강도를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근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음성노력을 감소시키고, 음성효율은 증가시키며, 동시에 음질을 향상시키게 한다. 한편, 고음 발성 제한의 음도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는 상후두신경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후두내근의 잔존 근력 및 유연성을 고취시켜, 고-저음에 대한 음도

범위를 최대한 증진한다.

음성치료는 음성 개선 책략과 언어치료사에 의한 발성훈련이 있다. 편측성 성대마비의 경우 고개를 돌려보거나 손가락으로 후두 측면을 누르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음성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에는 이러한 책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일정 기간 정규 치료를 통해 발성 훈련을 할 때는 과소발성기능장애에 준하여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이 조화롭게 개선될 수 있는 총체적인 음성치료를 진행한다. 적용할 치료 방법으로는 리실버만 음성치료(Lee Silverman Voice Treatment; LSVT), 액센트기법(Accent method), 성대기능훈련(Vocal Function Exercise; VFE)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갑상선암의 인구 증가로 인해 이에 관련된 음성 문제 동반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갑상선암 환자의 경우 비교적 수술 후 사회 복귀가 빠른 편으로, 즉각적인 음성 호전을 기대하는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갑상선암에 대한 특화된 음성재활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치료 제안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